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4. 11. 4

주간 달러/원 동향(10/28~11/1)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중동 정세 불안에도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인 가운데 강달러 조정 움직임과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속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미 대선 불확실성에 달러의 지지력이 유지되면서 상승 전환
- 중반,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와 소비자심리 개선 등 혼재된 지표에도 수급상 네고물량 유입 영향에 하락
- 후반,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에 유로화 가치가 반등하자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서 추가 하락. 이어 미 9월 근원 PCE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우에다 BOJ 총재의 긴축 의지 시사에 따른 엔화 강세에 강달러 제한된 가운데 미 비농업 고용지표 관망세 속 소폭 하락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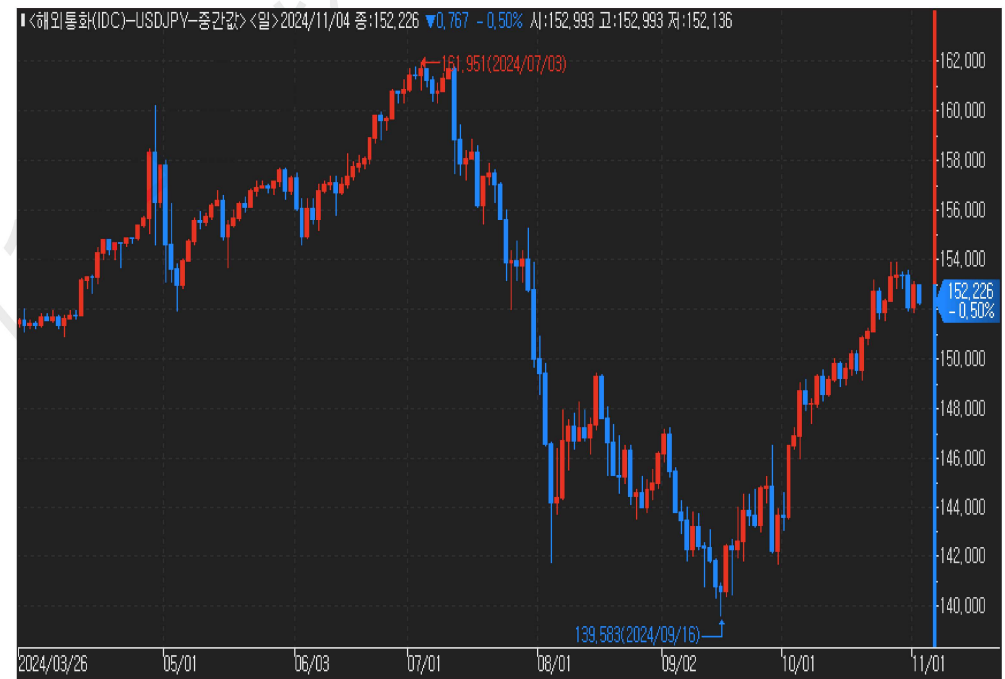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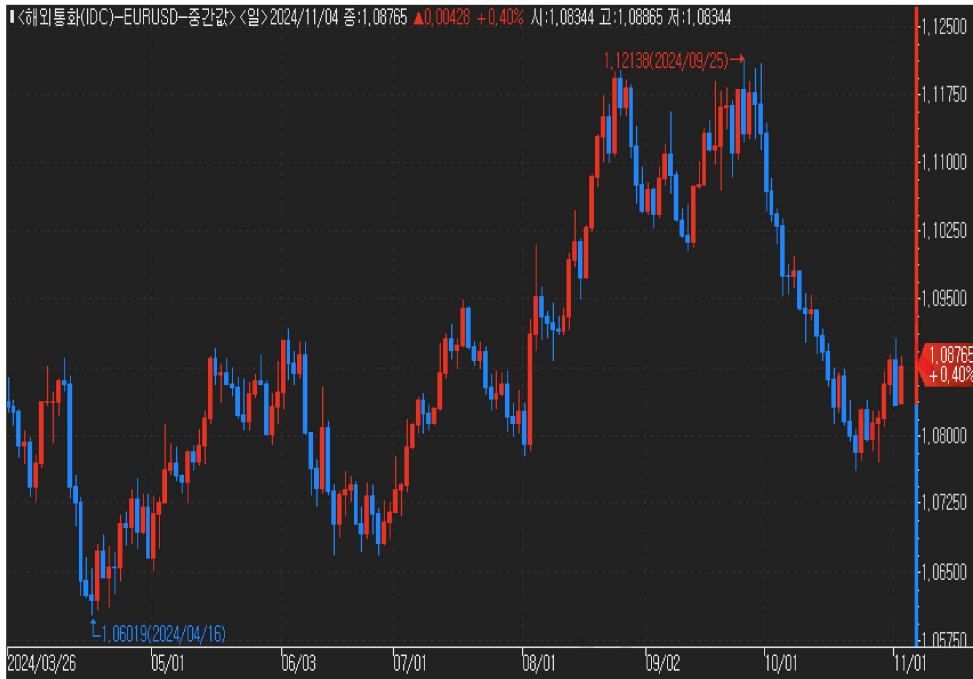
- 10월 고용보고서가 부진했음에도 허리케인과 파업 영향의 일시적 현상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11월 FOMC 에서는 예상되는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할 전망
- 다만,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경계감 등이 FOMC 이전 환율변동성을 높일 가운데 FOMC 이후로 미 대선에 대한 결과 방향성 변수 등이 당분간 환율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
- 다만, FOMC 결과만의 영향은 12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를 견인할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90.5	1,391.5	1374.7	1,379.4	-11.1

예상거래범위

1,360원 ~ 1,380원

엔·유로화 동향 (10/28~11/1)



유로화 동향

- 주초,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독일 소비자신뢰지수 개선 소식에 지지력을 보이는 가운데 좁은 폭에서 등락
- 중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 지역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측면에 힘입어 큰 폭의 강세를 보임
- 후반, 유로존 10월 CPI가 2.0%로 반등하자 ECB 12월 빅컷 기대가 열어진 영향으로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 대선 불확실성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등에 경계감 지속되면서 약세 전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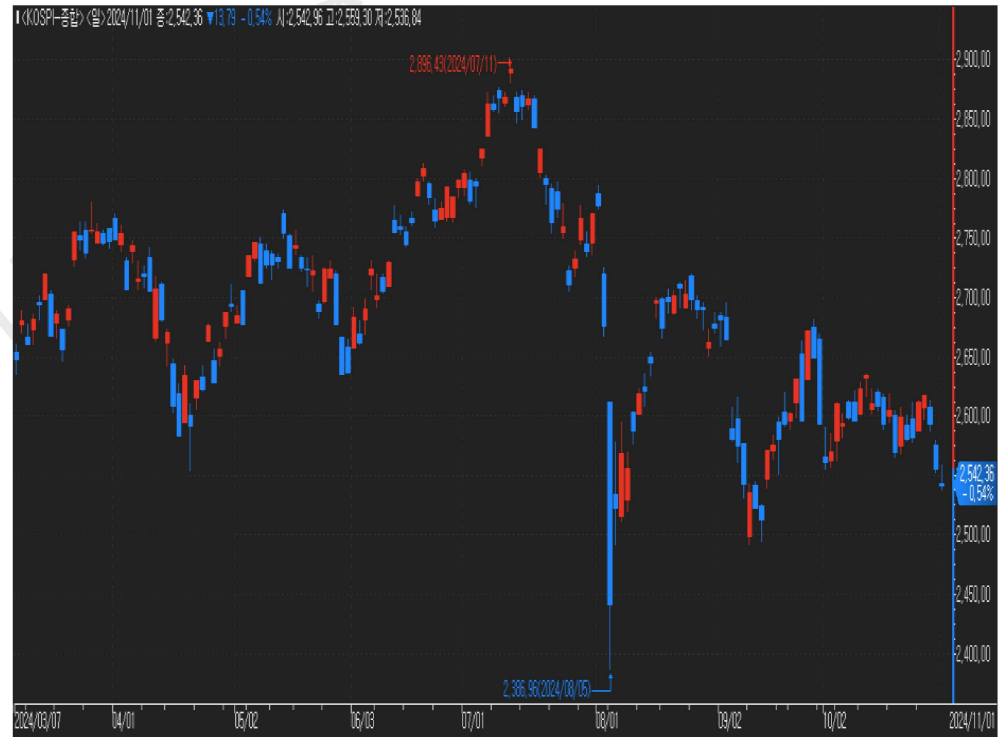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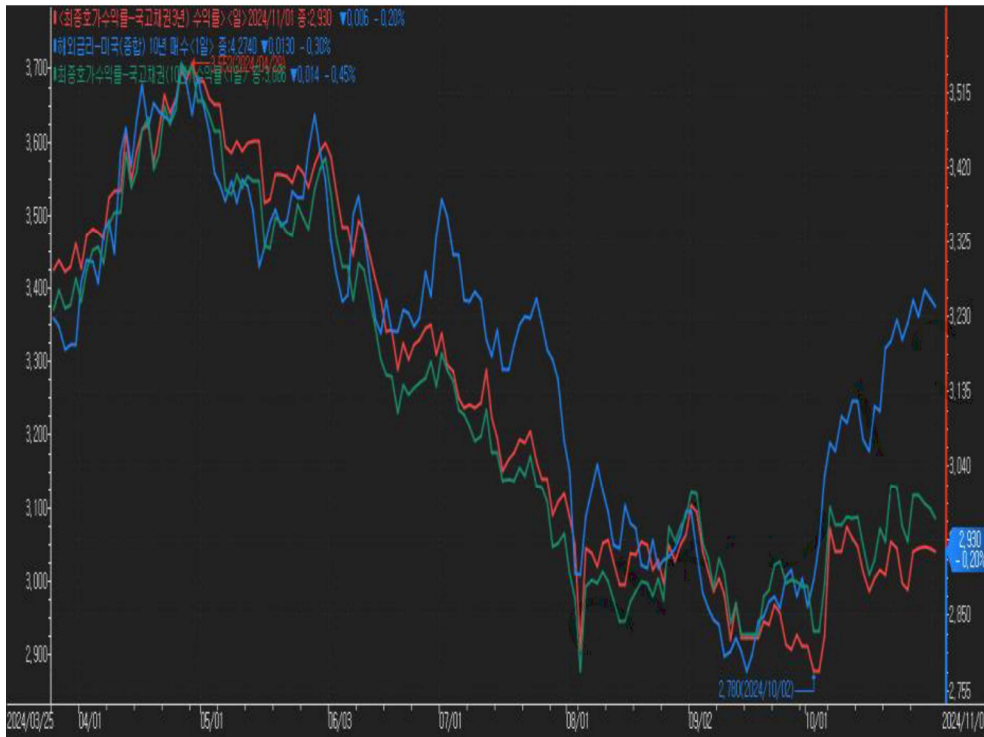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집권 여당의 총선 과반 확보 실패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가토 일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추가 약세는 제한된 모습
- 중반,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153엔선 전후 좁은 폭에서 등락
- 후반, 예상에 부합한 BOJ 금리동결 결정에도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평가되면서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을 크게 밑돈 미 비농업 고용지표에도 미 대선 관련 경계심리에 미 국채금리 상승하자 약세 전환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96	1.0906	1.0769	1.0834	+0.003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2.3	153.9	151.8	153.0	+0.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28~11/1)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한은 총재 G20 중앙은행 회의에서 환율 관련 언급과 3분기 성장률 쇼크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이 다소 크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이 시장에 매파적으로 인식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하락 영향 등을 반영하며 약보합 전환 양상 시현
- 중반 들어, 미 민간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는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경기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는 상황 속에 미 대선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방향성이 크지 않은 횡보세를 나타냄
- 후반 들어, 미국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2.8%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탄탄한 소비 흐름 속 미 대선에 대한 경계감 작용과 국고채 발행 계획 기대의 수급 영향 반영하며 장기 구간 중심 상승 후, 주 후반, 10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세 속에 보합권 혼조 흐름 나타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뉴욕증시의 주요 기술기업 실적 발표와 주요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관망세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과 이차전지 업종 강세로 상승 출발. 이어 미국 대선 '트럼프트레이드' 영향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된 변동성이 나타나며 소폭 강보합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국내 기업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및 일부 기업의 불성실 공시 등 '거버넌스' 이슈 부각 요인 속 외국인 주요 기업 순매도 지속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코스피 대형주들 동반 약세와 외국인 대량 순매도로 하락 폭 확대된 양상. 이어 후, 주 후반, 전일 미 증시 빅테크 기업실적발표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 약세를 반영하며 코스피도 약보합 흐름 마감